2027학년도 CERMONT 첨예 모의고사 1회

제 4 교시 정답 및 해설(생활과 윤리)

빠른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⑤	②	④	⑤	①	①	③	②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①	①	②	⑤	③	④	②

1번 정답 ③

▸ (가)는 규범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이다.

① 사회별 도덕 관습의 서술은 기술 윤리학의 과제이다. (가)는 따라야 할 기준을 탐구한다.

② 도덕적 진술의 성격을 따지는 일은 (나)의 과제이다.

③ 정답이다. (나)는 '옳다'는 진술의 성격과 정당화의 논리를 검토한다.

④ 보편적 기준의 수립은 (가)의 과제이다.

⑤ 인과적 설명은 기술 윤리학의 방식이며 (가), (나) 모두 주장하지 않는다.

2번 정답 ⑤

▸ 두 사람은 체세포 치료까지 합의하고 생식 세포 치료의 허용 여부에서 갈린다.

① 갑이 긍정하고 을도 동의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② 을이 본인 동의를 전제하고 갑도 "그렇습니다"라고 답한다.

③ 을은 "질병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라고 하여 효과를 다투지 않고 허용만 반대한다.

④ 토론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만 다룬다.

⑤ 정답이다. 갑은 허용을, 을은 불허를 주장한다.

3번 정답 ②

▸ 강연자는 문화 산업을 비판하는 아도르노이다.

① 대중은 "이미 짜인 틀 안에서 고를 뿐"이다.

② 정답이다. 규격화된 상품에 사소한 차이를 덧붙여 개성이 있는 것처럼 꾸민다고 한다.

③ 상품이 "반응까지 미리 정해" 놓는다고 한다.

④ 현실 비판의 힘은 사라진다고 한다.

⑤ 문화 산업이 틀을 짜고 대중은 그 안에서 고른다. 방향이 반대이다.

4번 정답 ④

▸ (가)는 도가(장자), (나)는 불교이다.

① 도의 관점에서 사물에는 귀천이 없다.

② 고삐와 코뚜레는 사람이 한 일로, 하늘이 준 상태와 대비된다. 인위를 긍정하지 않는다.

③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하므로 불변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정답이다. 원인과 조건에 의지함을 바탕으로 분별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을 자기처럼 여기라고 한다.

⑤ (가)는 만물이 나와 하나라 하고, (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5번 정답 ⑤

▸ 삶의 주체와 내재적 가치를 내세우는 레건이다.

① 칸트의 입장이다. 제시문은 삶의 주체 자체가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한다.

② 싱어의 입장이다. 제시문은 이익의 크기와 무관하게 수단화를 금지한다.

③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주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④ 내재적 가치는 더 많고 적음이 없이 동등하다.

⑤ 정답이다. 삶의 주체는 타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큰 이익도 이를 바꾸지 못한다.

6번 정답 ①

▸ 구체적 관계와 배려를 강조하는 나딩스이다.

① 정답이다. 배려받는 사람이 알아차리고 반응할 때 관계가 온전해진다고 한다.

② 자연스러운 마음이 먼저이고, 그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때 이상을 떠올린다. 선후가 반대이다.

③ 자기 관심을 상대에게로 옮겨 그의 처지에 몰입한다.

④ 도덕은 구체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⑤ 똑같은 크기의 보답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7번 정답 ①

▸ 갑은 패스모어, 을은 네스이다.

ㄱ. (O) 갑은 새로운 윤리 없이 대처할 수 있다고 하고, 을은 세계관의 근본 변화를 요구한다.

ㄴ. (O) 갑은 인간과 후손의 삶을, 을은 생명의 권리를 이유로 든다. 이유는 달라도 공통 입장이다.

ㄷ. (X) 갑은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책임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인간 중심주의자인 패스모어는 인간 외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을만의 입장에 가깝다.

ㄹ. (X) 을은 "생존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하여 필

수적인 경우를 제외한다.
따라서 ㄱ, ㄴ이 옳다.

8번 정답 ③

▸ 갑은 겸애를 말하는 묵자, 을은 인의와 추은을 말하는 맹자이다.
① 갑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라고 한다.
② 갑은 남을 자기처럼 보라고 한다. 차등은 을 쪽에 가까운 입장이다.
③ 정답이다. 내 집 어른과 아이에 대한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라고 한다.
④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보아 생업 보장을 먼저 요구한다.
⑤ 을은 가까운 데서 먼 데로 넓힐 뿐 같은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9번 정답 ②

▸ 갑은 개인의 양심을 앞세우는 소로, 을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롤스이다.
①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한다.
② 정답이다. 부정의의 하수인이 되기를 요구하는 법은 어겨야 한다고 하므로, 부정의를 돕는 일에서는 정부와의 협력을 끊을 수 있다.
③ 을의 불복종은 공동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④ 정상적 호소가 실패한 뒤에 행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⑤ 을의 입장이다. 갑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근거로 삼는다.

10번 정답 ⑤

▸ 가치별 분배 기준과 영역 간 지배의 차단을 말하는 왈처이다.
① 불평등한 소유 자체보다 다른 영역까지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② 가치의 의미가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
③ 의료, 공직, 상품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분배된다.
④ 같은 몫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고 곧 새 불평등이 생긴다고 한다.
⑤ 정답이다. 의료의 기준은 필요이며, 돈으로 다른 영역의 가치를 차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11번 정답 ④

▸ 갑은 극악한 살인에 한해 사형을 유지하려는 밀, 을은 사형에 반대하는 베카리아이다.
ㄱ. (O) 종신 중노동은 실제로 더 잔혹하면서 겉보기에 덜 가혹해 억제력이 약하다고 한다.
ㄴ. (O) 누구도 자기 생명의 처분권을 사회에 양도하지 않았다.
ㄷ. (X)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강렬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ㄹ. (O) 두 사람 모두 사형과 종신형의 억제 효과를 비교한다. 결론만 다르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다.

12번 정답 ③

▸ 미래 세대에 대한 비상호적 책임을 말하는 요나스이다.
ㄱ. (O) 미래 세대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ㄴ. (X) 전통 윤리의 전제이다. 요나스는 비상호적 책임을 원형으로 본다.
ㄷ. (X) 현세대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이를 저버릴 수 없다.
ㄹ. (O) 미래 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 요구할 수 없으며, 존속은 첫째가는 명령이다.
따라서 ㄱ, ㄹ이 옳다.

13번 정답 ④

▸ 갑은 주권자를 계약 밖에 두는 홉스, 을은 일반 의지를 말하는 루소이다.
ㄱ. (X)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 (O) 주권자는 신민들이 서로 맺은 계약으로 세워진다.
ㄷ. (X) 개별 의지의 총합은 전체 의지이며 일반 의지와 구별된다.
ㄹ. (O) 갑은 주권이 분할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루소도 일반 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나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ㄴ, ㄹ이 옳다.

14번 정답 ①

▸ 갑은 성향에 맞는 직분을 강조하는 플라톤, 을은 소외를 비판하는 마르크스이다.
① 정답이다. 통치자의 자식도 자질이 부족하면 생산자로, 생산자의 자식도 뛰어나면 수호자로 보낸다.
②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때 정의롭다.
③ 노동은 본래 그러하나 사적 소유 아래에서는 생존 수단으로 전락한다.
④ 소외는 사적 소유 아래 노동의 활동과 본질 전반에서 생긴다. 마르크스는 임금 인상만으로 소외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갑은 나라의 정의를, 을은 자기실현을 기준으로 노동을 평가한다.

홀수형

15번 정답 ①

▸ 습관, 중용,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정답이다. 마땅한 때, 대상, 목적, 방식으로 행위하고, 탁월성은 습관으로 형성된다.

②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느끼는 것이 최선이다.

③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중간이다.

④ 탁월성은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앎만으로 실천이 보장된다고 보지 않는다.

⑤ 공리주의의 조언이다. 제시문의 기준은 쾌락의 총량이 아니다.

16번 정답 ②

▸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없애지 않고 저작권을 이용해 공유의 자유를 지킨다.

①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다.

② 정답이다. 저작권을 이용해 공유의 자유를 지켜 낸다고 한다.

③ 소수의 배타적 통제는 창작의 토대를 좁힌다.

④ 결과물에도 같은 자유를 보장하도록 조건을 건다.

⑤ 창작물이 앞선 지식을 딛고 만들어진다고 하면서도 창작자의 저작권을 전제한다.

17번 정답 ⑤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①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며, 심판이나 영혼의 정화를 말하지 않는다.

②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③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④ 자신의 죽음을 앞질러 마주할 때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⑤ 정답이다. 갑은 평온한 삶을, 을은 본래적인 삶을 죽음의 이해와 연결한다.

18번 정답 ③

▸ 세 유형의 폭력과 두 유형의 평화를 구분하는 갈퉁이다.

①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이다.

② 구조적 폭력은 특정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 스며든 폭력이다.

③ 정답이다. 사상은 폭력을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화적 폭력의 통로이다.

④ 소극적 평화의 조건은 직접적 폭력의 부재이다.

⑤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를 구분한다.

19번 정답 ④

▸ 갑은 원조 의무를 말하는 롤스, 을은 세계 제도 질서를 비판하는 포기이다.

ㄱ. (O) 갑은 원조 의무를, 을은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와 빈곤 감소를 말한다. 둘 다 '예'이다.

ㄴ. (O) 갑은 정치 문화를 원인으로 보아 '예', 을은 세계 제도 질서를 원인으로 보아 '아니요'이다.

ㄷ. (X) 갑은 격차를 좁히는 것 자체는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 갑이 '아니요'이므로 B가 될 수 없다.

ㄹ. (O) 갑은 '아니요', 을은 '예'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다.

20번 정답 ②

▸ 갑은 합의와 무해를 기준으로 삼는 자유주의, 을은 사랑을 조건으로 삼는 중도주의이다.

① 갑의 기준은 성인의 자발적 합의와 타인에게 해가 없는 것이다.

② 정답이다. 어떤 감정이 함께해야 하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한다.

③ 자발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한다.

④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랑이 전제되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⑤ 두 사람 모두 출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